



최종규_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헌책에서 싹튼 한글사랑

우리말 즐기 최중규(30) 씨.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이기도 한 최종규 씨의 우리말 사랑은 남다르다. 전국의 헌책방을 돌며 책 속에 담긴 세월의 향기를 사각의 앵글 속에 담은 지 6년여. 수십만 장이 넘는 그 기록은 우리말·우리글에 대한 사랑과 함께 '모든 책은 헌책이다'는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겼다. 최씨는 '자장면'보다는 사람들이 즐겨 쓰는 '짜장면'이 진짜 우리말이라고 강조한다. 최씨의 각별한 우리말 사랑을 들어본다.

글 편집실 사진 김도형

보통사람들이 쓰는 말이 좋은 말

“언제나 꾸밈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하는 대로 삶을 이루고, 그 삶은 그가 속한 마을과 사회도 아름답게 한다.”

우리말 즐기 최중규 씨는 그가 쓰는 우리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사용 돼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

삶을 떠난 글은 아무 뜻도 의미도 없으며 글이 곧 삶이라는 그는 외국 말법과 말투, 일제강점기 때부터 쓴 ‘일본말’, 사대주의 때가 묻어 있는 ‘한자말’, 서양 것이면 뭔가 품위 있고 멋이 있다고 느끼면서 엉터리로 쓰는 ‘미국말’ 들은 우리의 삶을 의미 없게 하는 것들이라고 지적한다.

그가 우리말, 우리글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1998년, 군체대 후 우연히 우리말 사전 제작에 참여, 자료 수집을 위해 전국의 고서점과 헌책방을 찾아다니면서 우리말, 우리글 그리고, 헌책방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졌다. 그는 이때부터 우리 말 관련 홈페이지를 만들어 좋은 우리말을 소개하는 등 ‘우리말 바로 쓰기’ 운동을 펼쳤다.

“말은 글에서만 쓰는 말(글말)로 쓰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하는 말을 담아내야 진짜 글이다”라고 강조하는 최종규 씨. 그는 “언론인들은 자장면 이 옳다고 하지만 보통사람들은 모두 짜장면 이 편하다”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쓰이는 말이 사용돼야 한다”며 언론의 잘못된 우리말 주입을 비판한다.

또,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되는 줄임말, 변형어, 외계어 등에 대해서

도 “결과로만 판단하기에 앞서 이런 결과를 낳게 한 사회구조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원인을 제공한 기성세대의 책임을 지적한다. 하지만 “외계어 등의 통신어를 못쓰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즐기며 개선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주는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우리말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고집, 신념은 그를 24세의 나이로 한글학회가 수여하는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되게 했고, 오늘도 5천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함께 살기-우리말과 헌책방 쉼터’란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우리말을 즐기고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부하는 우리말 '즐김이'로

우리말·헌책방·책 문화운동가, 헌책방 지킴이, 우리말 즐기이... 그는 그를 칭하는 여러 이름과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경계한다. 이런 사람들의 관심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휩쓸려 자만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해서 이다.

“우리말과 글을 좋아만 하는 즐기이가 아닌 공부하며 나누는 즐기이가 되고자 늘 자신을 가다듬는다”는 최종규 씨. 그는 현재 이오덕 선생의 유고집과 원고를 갈무리 하며 국어사전 만드는 일을 준비 중이다.

“2005년에도 한글을 처음 배울 때의 마음처럼 우리말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자”는 그에게서 우리말과 글에 대한 굳은 의지와 사랑이 엿볼 수 있었다. n

모든 책은 헌책이다



6년여 전부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전국의 헌책방을 찾아다니는 사람. 헌책방의 풍경을 수만장이나 찍은 사람. 헌책 안에서 그 속에 깃든 솔한 이야기를 느끼는 사람. 전국 100여 곳 헌책방의 문 열고 닫는 시간을 꿰고 있는 사람 최종규.

그의 헌책방 사랑은 고교시절 절판 된 문제집을 찾아 나서면서부터 이다. 처음 찾은 헌책방에서 헌책방은 참고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이때부터 교과서에 소개된 문학작품의 목록을 만든 뒤 헌책방에서 이를 모두 사들여 읽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 된 헌책방과의 인연은 제대 후 인터넷 동호회 활동과 언론사 글 연재 등으로 열매 맺기 시작했다. “헌 책 안에는 이전 주인의 향취와 삶의 내음이 묻어있다”며 “절판 된 교과서 중에서 저자 생존 당시 초판 된 책을 대할 때면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최종규 씨.

그는 “지난 해 결혼한 아내도 용산의 헌책방에서 책을 찾아 만났으며, 주례 또한 고교시절 첫 인연을 맺은 헌책방 이주머니가 맞았다”며 헌책방은 자신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고 한다.